

“어린이 고객을 잡아라”...이통사 관련 상품 ‘붐물’

이동통신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통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늘리는 것은 부모와의 요금제 결합을 유도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최근 어린이·청소년 특화 상품의 상당수가 결합 할인이나 유해 콘텐츠 차단, 미아 방지 등 부모들이 선호할만한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7일 망내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고 방과 후에는 데이터 이용량을 절반만 차감하는 청소년 전용 요금제 ‘T끼리 텅’을 출시했다. 청소년 요금제 중 유일하게 음성, 문자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기본요금에 따라 T끼리 35, 45, 55 3종류가 있다.

가족 중 SK텔레콤 가입자가 있으면 가족 결합형 할인 프로그램인 ‘착한 가족할인’에 함께 가입해 매월 2000~7000원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부모와 요금제 결합...가입자 이탈 막아

미아 방지·유해 콘텐츠 차단 등 서비스

무료 VOD에 동화책 들려주는 기능도

SK텔레콤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유해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차단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과 제휴해 실시간 고민상담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T청소년 안심팩2’도 무료로 제공한다.

같은날 SK텔레콤과 KT는 공동으로 3G 기반 단말기를 이용해 자녀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U안심 알리미 서비스’도 선보였다. 위성항법시스템(GPS)과 무선기지국, 와이파이(WiFi) 등을 활용해 실내외의 구분없이 자녀의 위치를 실제와 가장 근접하게 확인해주며 설정한 안전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KT의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올레tv는 유아동과 청소년 대상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교육·키즈 카테고리에서 제공하는 주문형비디오(VOD)는 업계 최다인 7만편에 이르며 이 가운데 2만여편이 무료다. 특히 유아들 사이에 인기인 ‘뽀로로’ 극장판과 ‘코코몽’, ‘마법천자문’, ‘도라 익스플로러’, ‘버블버블 인어친구들’ 등 8000여편을 독점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전화, 오디오, TV 등 디지털가전기기를 결합한 올인원 가전 ‘홈보이’에 부모가 동화책에 맞춰 직접 음성을 녹음해 들려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용 콘텐츠를 강화했다.

이통사들은 이런 전략이 결국은 부모 가입자를 타깃으로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입자들이 서로 묶여 있으면 타 이통사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추가 할인 혜택을 내세워 같은 회사의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 TV, 인터넷전화 상품 가입을 유도할 여지가 있어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영국 IT매체, 삼성 갤럭시탭S ‘최고’ 호평

삼성전자의 전략 태블릿PC인 갤럭시탭S(사진)가 영국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들로부터 ‘최고’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IT전문매체 트러스티드 리뷰는 최근 갤럭시탭S 8.4에 대한 평가 기사에서 올해 안드로이드 태블릿PC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하며 ‘2014년 최고의 안드로이드 태블릿PC’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올해 안드로이드 태블릿PC 9개 제품의 리뷰를 차례로 게재하면서 갤럭시탭S 8.4를 화질과 기능 등 모든 주요 평가항목에서 뛰어난(great) 제품이라고 칭찬하고, ‘추천’ 제품으로 꼽았다.

이 매체는 총평에서 “갤럭시탭S 8.4의 2560×1600 해상도 화면은 환상적”이라며 “넷플릭스(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나 BBC 아이플레이어(BBC의 동영상 재생프로그램)를 구동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터리 수명이 길고 제품 두께가 얇아 휴대하기가 편리하다고도 평가했다.

다른 IT 잡지 엑스퍼트 리뷰는 갤럭시탭S 8.4에 별 다섯 개 만점을 부여하면서 ‘최고 제품(Best Buy)’으로 선정했다.

엑스퍼트 리뷰는 놀라운 화면과 사용성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콤팩트형 안드로이드 태블릿PC라고 갤럭시탭S 8.4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인텔, 태블릿PC로 다시 부활하나

AP시장 점유율 11% 3위에 올라...스마트폰 수모 털어내

과거 PC 시절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 최강자였다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켈컴 등에 밀려 설움을 겪었던 인텔이 조금씩 재기에 성공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1분기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

집계 결과, 인텔이 점유율 11%로 애플(30%)·켈컴(18%)에 이어 3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AP는 PC로 치면 CPU에 해당하고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하는, 스마트 기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이 부품이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인텔은 PC가 시장의 중심에 있던 시절에는 경쟁사 AMD보다 높은 인지도와 시장점유율로 절대적인 강자였지만 스마트폰 시장에 접어들면서 켈컴 등의 선전과 시장 선점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저가형 태블릿PC 등을 시작으로 태블릿PC 시장에서 다시 영향력을 높여가려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인텔이 태블릿PC 시장에서 강자로 서려면 우선 강력한 경쟁 상대인 켈컴을 따라잡아야 한다.

켈컴은 ‘스냅드래곤 800’을 비롯한 스냅드래곤 시리즈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PC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 앱

mp3로 음악 듣니? 난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면서 mp3플레이어의 영역을 침범하지 이미 오래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활용해 음악을 듣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앱들이 등장했다.

- ◆beat / 제작:비트패킹컴퍼니 / 사용기반:안드로이드, 아이폰
올 한해 단연 화제가 된 음악 감상 앱이 있다면 바로 비트라디오다. 기존 라디오의 개념과 소셜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 ◆soundcloud / 제작:soundcloud / 사용기반:안드로이드, 아이폰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고 올려놓은 음악을 감상하고 싶다면 사운드클라우드를 이용하자. 친구와 아티스트를 팔로우 해서 이들이 올려놓은 음악을 감상하고 평가도 가능하다.
- ◆soundhound / 제작:Soundhound Inc / 사용기반:안드로이드, 아이폰
커피숍,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어떤 노래인지 알고 싶을 때 이 용하는 앱이다. 그저 앱을 켜놓고 음악이 나오는 장소에 있으면 자동으로 노래를 알려준다.

카메라 시장 ‘DSLR’ 지고 ‘미러리스’ 뜬다

(Digital Single Lens Reflex)

(Mirrorless)

가볍고 고화질 장점...올들어 매출 비중 56%로 급상승

대중적인 카메라 시장의 무게추가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에서 미러리스(Mirrorless)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이마트는 올들어 7월까지 카메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대비 미러리스 카메라 비중이 56%를 나타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반면 DSLR은 28%, ‘똑딱이’로 불리는 콤팩트 카메라 비중은 16%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 성장률도 미러리스가 18.4%에 달했던 반면 DSLR은 44.4%, 콤팩트 카메라는 57.5% 각각 감소했다.

2년 전인 2012년만해도 전체 매출에서 미러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고, 콤팩트 카메라는 45%, DSLR이 36%로 양대 축을 구성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러리스의 점유율은 40%로 DSLR(34%), 콤팩트 카메라(26%)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들어 DSLR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

2000년대 초반 DSLR이 대중화하면서 필름 카메라가 자취를 감췄듯 10년 넘게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DSLR이 이제 미러리스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에 비해 가볍고 부피도 적어 휴대하기가 좋다. DSLR 처럼 렌즈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초기 미러리스 카메라는 화질을 결정하는 화소 수가 적고 초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또 DSLR과 고화질 성능의 스마트폰 사이에 어정정하게 끼어 있어서 제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최고급 DSLR의 성능을 뛰어넘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이런 예상이 깨졌다.

가장 최고급 DSLR을 뛰어넘는 3600만 화소의 초고화질 제품이 나오고,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등 메이커들이 잇따라 출시된 60~80만 원대의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고기능을 갖춘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 이런 시장상황 변화의 요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
--------	--	---	----------------------------------	----------------------	------------------------------------